

[보도자료] 쿠팡, ‘힘내요 대한민국’ 광주·제주 지역과 함께

2020. 4. 27.



- 광주·제주 지역 특산품과 소상공인 상품을 모은 특별 기획전 진행
- 판로 잃은 광주·제주 지역 농가 및 소상공인 상품 쿠팡이 직접 매입해
- 7일부터 7개 광역단체와 손잡고 2,274개 상품 쿠팡에서 선택

2020. 04. 27. 서울 – 쿠팡은 광주, 제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힘내요 대한민국’은 지역 상생을 위한 기획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판로를 잃은 소상공인과 농수축산인들의 상품을 쿠팡에서 직접 매입해 진행된다. 해당 지역 업체들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쿠팡의 메인 광고면 포함한 마케팅도 지원한다.

쿠팡은 지난 7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이어 왔으며, 이번 주에는 광주·제주 지역 업체의 380여 개 상품을 로켓배송으로 선보인다. 지역 특산품은 로켓프레시로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받아볼 수 있다.

대표상품으로 제주 옥돔 2마리 400g을 2만6천 원대에, 제주농장 유기 레드비트 진액 30개입 100mL를 2만1천 원대에, 광주 제이준 캄포도마 엔드그레인 사각도마를 8만9천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쿠팡은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통해 대구, 경북, 경남, 대전, 충북, 광주, 제주 총 7개 지역의 142개 업체와 협력해 2,274개 상품을 소개했다. 쿠팡은 더 많은 지방 미니기업과 협력하기 위해 지자체를 통해 쿠팡에 입점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은 2020년 연말까지 이어진다.

쿠팡 윤희영 리테일 부사장은 “쿠팡의 물류 네트워크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판매 채널과, 더 큰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기업을 발굴하고 직매입량을 늘려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쿠팡이 지난 2019년 발표한 ‘2019 쿠팡 미니기업 성장 리포트-쿠팡과 함께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에 따르면 쿠팡 미니기업 중 60%가량이 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지방 미니기업은 서울보다 3배 더 큰 폭으로 성장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